

## 무례

수 세기에 걸쳐 무례의 마을과 이웃한 마을인 아지는 고켄잔 산에서 채굴하는 고품질의 화강암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무례는 석공, 조각, 예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카마쓰시 돌 민속자료관을 비롯하여 몇 군데의 미술관과 이사무 노구치(1904~1988), 조지 나카시마(1905~1990) 등의 예술가와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례에서 활약하며 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무례는 1185년에 미나모토 가문과 다이라 가문이 싸웠던 야시마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이라 가문은 야시마에 요새화된 임시 궁전을 갖추고 이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나모토 가문이 해안에 불을 놓아 대군이 오는 것처럼 위장하여 다이라 가문의 배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사라지자 미나모토 가문은 무례를 경유하여 육로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 전투는 미나모토 가문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으며, 무례에는 싸움의 중요한 장면이 펼쳐진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노리이와'(기도를 드리는 바위라는 뜻)는 미나모토 가문의 병사인 나스노 요이치(1169~1232년이라고 전해짐)가 퇴각하는 다이라 가문의 배를 향해 화살을 쏘기 전에 기도를 올렸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 안에는 궁녀가 있었는데, 막대 끝에 단 부채를 흔들며 미나모토 가문의 군을 도발했기 때문에 요이치는 그 부채를 노렸습니다. 화살이 기적적으로 표적을 맞추어 요이치의 무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가 화살을 쏜 장소에는 '고마다테이와'가 있습니다.

무례는 일찍이 독립한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다카마쓰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야시마와 아이비키가와 강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